독립국가연합(CIS) 고려인사회 지원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 병 조
(한국외국어대학교)

Ⅰ. 머리말

본 논문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소련 붕괴 이후 한국정부 산하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의해 20여년 간 수행되어 온 독립국가연합(CIS, 과거 소련권) 고려인 사회에 대한 지원활동 및 그 성과들을 진단 및 재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서 정부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글로컬(Glocal) 시대에 한국문화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있는 재외한인사회의 격을 높여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 재외동포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부분적으로 나마 기여하게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1990년대 초 동서냉전의 한 축이었던 소련이 붕괴된 지 어느새 20여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간 재외동포재단, 국제교육진흥원(현 국립국제교육원), 동북아평화연대, 일부 종교단체

나 대학봉사단체, 의료단체,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한국교육원, 코이카(KOICA), 사설 한글교육단체(한글학교 등) 등에 의해서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사회에 대한 각종 지원활동이 수행되어 왔다. 가령 1990년대 초부터 대아산업(1991), 고합상사(1991, ㈜프림코),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1998) 등의 연해주 농업진출과 이에 수반된 고려인 농업지원활동, 일부 개신교단들의 선교를 동반한 한국어 교육 및 문화지원활동을 들 수 있다. 또 1990년대 중후반부터 이어진 정부차원의 한국교육원 설립을 통한 한국어 교육 지원활동과 200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독립국가연합 한국어교사 초청연수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이어진 대학생 봉사활동이나 의료봉사활동, 그리고 동북아평화연대의 중앙아시아 재이주 고려인 정착촌(우정마을) 건설과 농업지원 및 경영활동(순얏센, 크레모보 농장) 등도 한 예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 할 수 있는 고려인 학생 · 청년세대에 대한 정부차원(재외동포재단,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 유학 및 장학 지원사업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

한편 현장에서의 지원활동과는 별도로, 학계에서는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사회에 대한 국내외 지원활동 및 정책과 관련한 연구물들도 드물지 않게 출간되어 나왔다.[2)] 이러한 연구물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20여년의 독립국가연합 고려인을 상대로 한 정부의 정책수행에 길잡이가 되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타지역을 상대로 한 재외동포정책을 포함, 고려인 지원 및 정책수행에 있어서 이제는 20여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권이나 담당책임자가 바뀌어도 쉽게 변치 않는 원칙과 체계를 수립해야 할 때가 무르익었다고 본다. 나아가 이러한 원칙과 체계 하에 고려인 지원정책이 집행되어 나갈 때 '풍요 속에 비곤한 현장' 이나 소외

1) 2007년부터 방문취업비자(H-2) 제도 시행으로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청장년들도 5년 비자를 받고 입국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특히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즈스탄 출신의 고려인들이 대거 한국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노동을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해당 고려인들의 생계기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방문취업비자 제도로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근교 시온고콜호즈의 경우, 거의 절반 정도의 고려인들이 한국에서 유학이나 취업노동을 하고 있거나 경험한 바가 있다고 한다(동방대학교 및 한국교육원 강사 황나제쥐다 인터뷰(2012.5.20일)).

2)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사회에 대한 국내외 지원활동 및 정책과 관련한 일부 연구물들은 다음과 같다: 成東基, "체제전환기에 나타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독립세대의 정체성 문제와 대응방안 고찰: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歷史教育研究會, 『歷史教育』= The Korean history education review, 제121집, 2012, 191-219쪽; 정민정, "「고려인동포 지원법」과 국제규범의 상충 여부: 베니스 위원회의 '재외동포지원을 위한 혈통국의 입법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입법조사처보』통권5호, 2010, 68-75쪽; 이범관,『무국적 고려인 국적취득 사업을 위한 현지조사 보고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서울 : [이범관의원실], 2009; 이영심 · 최정신,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高麗人) 주거에서의 지속과 변화: 재한(在韓) 고려인 이주 노동자의 주거 지원을 위한 탐색," 『대한가정학회지』제46권8호 통권244호, 2008, 55-72쪽;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고려인(高麗人)의 주거 및 주생활: 재한(在韓)고려인 이주 노동자의 주거 지원을 위한 탐색," 『대한가정학회지』제46권4호 통권240호, 2008, 47-59쪽; 김현동, "한국의 연해주 농업 진출과 고려인동포의 이주정착," 海外僑胞問題研究所 僑胞政策資料 제68집, 2008, 107-111쪽; 허영호, "러시아의 국적법 개정과 고려인동포의 재정착 지원방안," 국제농업개발원, 月刊『상업농경영』통권220호, 2006, 47-49쪽; 최영표,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민족교육의 실태와 지원과제," 한국동북아학회,『한국동북아논총』제9권제2호 통권31집, 2004, 137-154쪽; 배수한, "통일한국을 위한 러시아 극동지역 거주 고려인의 지원 및 활용방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동북아연구』제9집, 2004, 83-116쪽; "통일한국을 위한 러시아 극동지역 거주 고려인의 지원 및 활용 방안: 통일한국의 비전과 재외한인 네트워크," 통일문제연구협의회,『통문협동향과논단』제2호, 2004, 91-117쪽; 최영표,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민족교육의 실태와 지원방향," 해외교포문제연구소, OKtimes:overseas Koreans 통권 제109호, 2002, 42-53쪽.

된 곳으로부터의 볼멘소리 또한 최소한으로 감소될 것이다.

필자는 언급한 상황들을 고려하며,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주요 집거지들 내에서 지역적 안배와는 무관하게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을 우선순위로 삼고 조사에 임했다. 즉 필자는 독립국가연합 내 기존의 고려인 지원대상지나 대상자들 외, 실제적인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형태의 지원이 필요한지 등의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정책적 모색) 내지는 도움말을 간략 제시했다. 본 연구의 성과물은 고려인 지원문제와 관련, '가장 최근' 의 소외지역 내지는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지역 및 대상을 살펴보았다는데 1차적으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제시된 해결방안(정책적 모색) 내지는 도움말이 미래지향적 재외동포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정책을 입안 및 집행해 나가는데 기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본 연구를 위해 문헌과 현지조사(인터뷰 및 현장 조사) 자료를 활용했고, 가장 최신의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전화를 통한 인터뷰 자료를 집필과정에서 활용했다.

취합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 I 장에 이어, 제II장에서는 러시아(연해주)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고려인 사회의 농업 및 영농지원 문제를 살펴보았고, 제III장에서는 러시아(연해주)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기타지역에서 한국어 교육 및 예술문화활동 지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나아가 제IV장에서는 도출된 결과들을 토대로 조심스럽게 결론을 도출해 보았다.

Ⅱ. 고려인 농업과 영농지원 문제

1. 러시아 연해주 지역

러시아 연해주는 독립국가연합 50만 고려인의 고향이다. 이곳은 약 150년 전 조선 북부의 농민들이 자유농지를 찾아 들어가며 이주개척사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뒤바보(北愚) 계봉우 선생이, "단기 4197년(1864) 갑자(甲子) 봄에 최운보와 양응범이 두만강을 건너 지신허에 내주(來住)하여 개척을 시작하니, 이는 '콜롬버스'의 신대륙 발견에 견줄만 하다"[3]는 평을 실을 정도로 연해주는 기후와 지형이 한반도와 유사하고, 토질 또한 비옥해 한인[4]들이 몰려들어 농사짓기에 안성맞춤의 장소였다. 그런 역사의 현장에 오늘 다시 현대인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연해주를 포함한 극동지역은 19세기 후

3) 『獨立新聞』, 1920년 3월 4일, 제49호, 「俄領實記」, 제1호, 〈移植된 原因〉.
4) 1937년 강제이주 이전 극동 거주 한민족들에 대해서는 '고려인' 대신 '한인' 으로 칭할 것임을 밝혀둔다.

반이라는 비교적 뒤늦은 시기에 러시아에 편입된 곳이다. 그런 만큼 연해주를 포함한 극동의 고려인 사회는 정치 · 경제 · 사회사적인 특수성을 안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특수성으로 우선 극동의 한인 사회는 계속되는 추방과 재이주의 아픔을 경험해 왔음을 들 수 있다. 즉, 1860년대-20세기 초까지 지속된 한인들의 연해주 이주와 국경지역 정착은 국경문제를 야기시켰다. 한인 이주자들에 대한 반복적인 추방위협 속에 내륙으로 재이주정책이 시행되었는데, 그 한 예가 우수리스크 서쪽에 형성된 부농지대인 추풍사사,[5] 아무르주 남부에 형성된 블라고슬로벤노예 마을이다. 둘째는 극동지방정부의 조령모개(朝令暮改)식 한인정책과 불안정한 국적 · 토지문제를 들 수 있다. 1880년대 중반을 거치며 러시아인 농민의 극동유입이 증가되며 한인과 러시아인 이주 간에는 토지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어 갔다. 이런 가운데 특히 극동지방정부 총책임자(군사령관지사)의 한인관(韓人觀)에 따라 취해진 불안정한 조령모개식 한인정책으로 한인들은 국적편입과 토지분여 정책에서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셋째는 토지소유를 둘러싼 한인사회 내부(원호와 여호)의 갈등을 지적할 수 있다. 당시 극동의 한인사회 내에는 이른 진출 시기에 따라 토지소유자(원호)와 비소유자(여호) 계층이 존재했다. 그로 인해 조선에서처럼 한인사회 내부에서는 다시 소작농이나 광산 노동자 계층이 발생했고, 이는 1928년 스탈린의 농업집산화(국유화정책) 정책으로 일단락되기까지 한인사회 분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1) 농업활동 상황과 문제점

농업은 인간의 생업활동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분야이다. 게다가 미래 인류의 식량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농업의 가치는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인식에 공감하고 그간 국내의 여러 주체들이 역사적, 지리적으로 관련성이 깊은 연해주에 농업진출을 해왔다. 하지만 장기임대방식으로 농업경영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성과를 논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 필자는 이러한 진출 주체들의 농업적 성과를 논하기보다는 현재 연해주 농업 주체들이 안고 있는 당면한 현안들을 짚어보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는 그러한 현안들이 결과적으로는 연해주 고려인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농업지원 문제와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해주에는 1990년대 초 소련방 붕괴 이후 농지 장기임대 방식으로 곡류나 채소농업에 종사해 온 한국의 기업이나 사회단체들이 적지 않다. 이런 주체들로는 ㈜대아산업(1991), ㈜고합상사(1991), ㈜프림코), ㈜대경(1996), (사)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1997)와 (사)대한주

5) 1869-70년 시기에 수이푼강, 레푸강과 다우비헤강 유역으로 총 5,700명의 한인들이 재이주 되었다. 이중 새로 신설된 한카(Ханка) 관구에 세워진 6개의 새로운 마을들, 즉 푸르겔모프카(Фуругельмовка), 카자케비체보, 추풍사사(秋風四社)인 코르사코프카(Корсаковка, 허커우), 크로우노프카(Кроуновка, 황커우), 푸칠로프카(Пуцилловка, 육성촌), 시넬니코보(Синельниково, 영안평 대전자)에 330가구(1,466명)가 자리를 잡았다(Б.Д.Пак., *Корейцы В Российском тимерии(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период)*, М., 1993, с.36 참조)

택건설사업협회(1998), ㈜남양알로에(1998),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1998), 두레마을, 순복음교회, 발해영농사업단, 현대중공업, 동북아평화연대, ㈜코리아통상(2010, 아그로아무르), 아그로상생, 알로프리모레, ㈜서울사료(에코즈)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진출 주체들에 의해 순얏센이나 크레모보, 페트로비치카 등의 농장들이 운영이 되었고, 곡류(벼, 보리, 밀, 귀리, 콩, 메밀, 옥수수)와 양파, 특용작물, 축산, 목재 등이 재배되고 있다.[6] 물론 이중에는 이미 활동을 하지 않는 진출 주체들도 많다. 지금은 ㈜남양알로에(1998)나 현대중공업, 동북아평화연대의 현지법인인 동북아평화기금, ㈜코리아통상(2010, 아그로아무르), 아그로상생, 알로프리모레, ㈜서울사료(에코즈)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다.

필자는 여기서 최근까지도 비교적 순조로운 농업경영 활동을 이어왔던 동북아평화연대(이하 '동평')의 사례를 통해 연해주에 진출한 농업 주체들의 농업활동에 수반되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그에 따른 연해주 고려인 농업지원 문제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 우수리스크 근교 우정마을

▲ 순얏센농장 비닐하우스

동평은 우수리스크에 진출해 있는 대표적인 NGO단체이다. 물론 동평은 농업경영만을 목적으로 활동해 온 것은 아니지만, 중앙아시아 출신의 재이주 고려인 사회에 대한 농업지원과 정착사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농업진출에 참여해 왔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단체들과는 차이가 있다.

동평은 2000년대 초부터 재외동포재단, 대한주택건설협회의 지원 하에 우수리스크 외곽에 우정마을을 건립했다. 이어 마을 내에 솔빈문화센터(한글교실 4개 운영 중)와 솔빈실험농장(2004년-5동, 2005년 25동의 비닐하우스 건조), 육묘장 등을 건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동평은 고려인 농업정착 및 육성사업을 전개해 왔고, 나름 성과를 이루어 왔다.[7] 뿐만 아니라 사업주체의 변화를 통해 운영 쇄신에도 힘써왔다.[8] 하지만 이러한 동평 또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다.

현재 동평의 사업은 현지 법인인 동북아평화기금이 농업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경영상황은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그간 지원해 왔던 축산이나

6) 이송호 · 이재훈 · 김승준, 『연해주와 고려인』, 백산서당, 2004, 84-86쪽.

7) 동평은 비닐하우스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하면서 우정마을을 농업행정센터나 집하지로 두고 생협(농업협동조합) 시스템의 구축을 주요 목표로 설정해 왔다. 또한 현재 만들어 지고 있는 고향마을(순얏센 농장)은 유기농 콩 생산기지이자 1차 가공기지로 체계를 잡아나가는데 주력해 왔다.

8) 고려인 농업정착과 발전에 힘써 왔던 동평은 2010년 고려인문화센터 완공과 개관 시점부터 농업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NGO단체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대신 동평 멤버들이 현지 러시아인들과 설립한 '동북아평화기금' 이 동평의 고려인 농업정착 및 지원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

비닐하우스 농가에 대한 개별적인 소액 지원금을 통한 성공률은 20%정도에 그쳤고, 이는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게다가 현재 연해주 고려인 사회의 농업활동은 필요성과 관심, 열기는 있으나 동력이 조금은 식은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춤거린 현상의 주요 원인에 대해 동평 사무국장 및 집행위원장을 지냈고, 전 동북아평화기금 대표를 역임했던 김현동 대표(현재 사회적 기업 '바리의꿈'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우선은 한국측으로부터의 불안정한 재정지원에 원인이 있다. 물론 지난 정권 초기에 재정지원이 중단되었다가 2011년도부터 일정액 지원이 시작되기는 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농업경영에 따른 장기적인 발전계획의 부재에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실적으로 생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와 유통망의 미구축에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9)]

그런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비단 동평, 즉 동북아평화기금의 농업활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앞서 언급한 연해주 진출 농업 주체들의 농업활동과 그들과 함께하는 고려인에 대한 농업지원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들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진출해 온 농업 주체들의 자본과 영농기술이 연해주 고려인 농업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볼 때, 진출 주체와 그에 속한 고려인 사회의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연해주 주정부, 나아가 러시아 중앙정부의 극동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농업정책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고려인 관련단체와 농업구성원들, 그리고 한국측 지원주체 간에 그간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과 향후에 대한 진지하고도 냉철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다.

연해주에 진출하여 활동해온 한국의 농업 주체들, 즉 기업 및 단체들의 그간의 농업사업의 성과는 그다지 밝지 못하다. 이는 무엇보다 생산물이 '생산-유통-판매-수익창출' 이라는 구조로 이어지는 못하고, 예상했던 만큼의 투자수익을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진출한 한국측 농업 주체들의 성공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현지 고려인 농업사회의 발전과도 적지 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는 앞서 동평의 사례에서 간략하게 나마 짚어 보았다. 특히 연해주의 경우, 1990년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재이주 해 온 고려인들에 의한 농축산업의 비중이 적지 않다. 이들을 포함한 연해주 토박이 고려인 농업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이익창출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연해주에 진출한 한국 농업주체들의 활동과 문제점에 대해 2000년대 중반의 진단을 보

9) 전 연해주 동북아평화기금 김현동 대표 인터뷰(2012.5.20일).

자. 전문가들은 연해주에 그간 진출 활동해 온 한국 농업 주체들의 농업활동에 대해서 그다지 후한 점수를 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농업 주체들의 - ①불명확한 진출동기, ②사전준비와 정보, 전문성 부족, ③계약체결 및 이행상의 문제, ④생산물 처리의 어려움 -[10] 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네 번째 원인은 연해주 고려인 농업사회를 지원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생산물의 처리의 어려움인데, 현지판매의 경우 유통체계의 미비와 과다한 물류비, 현지정부의 가격통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외반출의 경우에도 현지 정부의 수출제한 정책과 물류비 과다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11] 이러한 사정은 연해주 고려인 농업정착에 선두적으로 앞장서 온 동평(현재는 현지법인 동북아평화기금이 대행)의 사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사안이다. 김현동 대표가 앞서 지적했듯이, 연해주에 진출한 농업주체이든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고려인 농업인들이든 생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와 유통망의 구축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 것이다.

2) 해결방안과 정책적 모색

연해주에 진출한 한국측 농업주체들이나 그에 속해있는 고려인 사회의 농업발전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 해법을 찾아볼 수 있다.

① 국내외 향후 도래할 식량(곡물) 및 농업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아그로 아무르〉농장 농업기술고문을 지낸 이석우 고문은,

> "한국의 곡물전체 기준 식량자급률은 27% 수준이며, 쌀을 제외하고 다른 곡물들은 심각한 불균형 상태(콩 5%, 밀 0.2%, 옥수수 0.8% 등)이다. 또 농경지 면적은 전국토의 19%(논-61%, 밭-39%)정도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게다가 농민의 고령화와 농업에 대한 무관심으로 한국의 농업은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농업관련 산업의 위축과 쇠퇴로 농산물 안정공급과 관련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외에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12]

10) 이송호 · 이재훈 · 김승준, 앞의 책, 87-88쪽. 전문가들은, "진출 주체들이 일반기업체와 함께 법인 및 비영리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경제적 동기(이윤창출)와 비경제적 동기(북한 식량 및 현지 고려인 지원)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적자가 진출 동기와 상관없이 사업의 지속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러시아 농업진출 관련 정보의 입수통로가 제한적인 가운데 진출 주체들의 농업경영에 관한 전문성 부족과 결부되어 현실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나아가 투자 타당성 조사와 계약단계에서 필요한 현지와의 접촉창구가 제한적인 것도 장애요인이었고, 러시아 문화, 경제 및 사회제도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계약체결 단계부터 오류가 발생했으며, 현지에서의 철저한 감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이행이 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있다.

11) 위와 같음.

12) 이석우, "연해주 영농사업의 경험," 『한민족공동체』 제17호, 2010, 63-66쪽.

는 국내의 농업상황 논리를 통해 연해주 농업진출에 대한 명분과 농업개척에 대한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2050년 경 세계 인구는 73억명으로 증가하고 식량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EU 등, 상위 5개 국가가 곡물수출의 2/3(미국 37%)를 점유하는 등 생산과 유통의 불공평, 불균형 문제가 대두하게 된다"[13]

고 언급하며, 연해주 농업개척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석우 고문이 연해주 농업진출과 농지개척의 당위성과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했다면, 김현동 대표는 연해주 고려인 사회의 농업발전을 위해 보다 거시적이면서도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②~③번)을 제시하고 있다.

② 연해주-한국-주변국을 잇는 농업경제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연해주 고려인 사회의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지원차원에서 끝나서는 안된다. 연해주에서의 농업활동은 연해주-한국-주변국을 잇는 하나의 농업경제 벨트를 구축한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당면성은 한국 내의 곡물생산이나 향후 전세계적인 식량문제의 도래를 예상해 볼 때 결코 의미가 작지 않다고 본다".[14]

③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유통망(생산-소비조합-유통-판매) 구축이다.

"연해주 고려인 농업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생산물 생산에 따른 공동작업장과 지속적인 공동일자리가 필요하다. 또한 생산에 이은 유통과 판매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판로구조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즉 연해주의 고려인 농업(축산업, 비닐하우스, 유기농 콩재배가 주요 농업품목)은 장기적으로 현지에서는 유기농협동농업단지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고, 자국 내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적어도 한국(혹은 주변국)으로의 유통과 판매망 구축으로 이어지도록 한국정부의 장기적인 지원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즉 농업생산협동조합(생산-소비조합-유통-판매) 체제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한국(혹은 주변국)과 연계될 때, 고려인 농업의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거시적인 안목과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유통망의 확보

13) 위의 책, 66-67쪽.
14) 전 연해주 동북아평화기금 김현동 대표 인터뷰(2012.5.20일).

없이는 단기적인 이익은 가능하나 장기적인 고려인 농업의 성공은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15]

김현동 대표의 경우, 현재 강원도 동해시에 거점을 두고 '생협' 형태인 기업 '바리의 꿈'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하루속히 비자문제가 다시 해결되어 연해주 들판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가 대표로 있는 기업 '바리의 꿈'은 연해주 농작물(유기농 콩)의 유통과 판매망의 역할을 하며 적지 않은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가 강조하고 있는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유통판매 체제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2.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즈스탄 지역

1) 카자흐스탄 지역

① 농업활동(지원) 상황

한국정부는 그간 독립국가연합 내 고려인 재정착 지원사업으로 2007년(8억), 2008-2011년 시기 동안 매해 12억원을 집행해 왔다. 이 지원사업은 주로 고려인 농업발전과 관련된 것으로, 그간 우크라이나 장코이 및 헤르손, 러시아 로스토프 나 도누(2008.11-2010.6) 등 고려인 밀집지역에 시범영농단지(비닐하우스)를 조성했다. 또한 농업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한국의 선진영농기술을 전수하여 고려인 사회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해 왔다(장코이 경우, 2010.12-' 11.2월 기간 동안 충북대 교수팀이 농업 교육을 실시). 카자흐스탄 알마타에서 약 4시간 거리에 있는 우쉬토베에도 2010년에 시범영농단지로 비닐하우스 1동이 건설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다.

② 문제점 및 해결방안(정책적 모색)

그런데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그에 따른 볼멘 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첫째는, 파종과 재배 시기가 현지 상황과 맞지 않아 난방비용(전기, 기름 등) 과다와 낮은 수익성 문제이다. 둘째는, 지원을 해 준 한국측의 계속적인 개입은 오히려 현지인의 자립을 저해한 다는 점이다. 셋째는, 비닐하우스 3동 중 1동이 먼저 건립되었지만 그에 따른 시설비용은 비닐하우스 3동을 건립하는 것과 동일하게 발생했다는 점이다. 즉 고려인협회 이름으로 임대를 주기도 전에 기술교육, 경작지 준비, 연수장소 마련 등, 고려인협회에서 15만불 이상의 상당 비용을 이미 지출했다. 넷째는, 운영은 고려인협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약속과 계약이 되었으나 현재 2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도 서류상으로 비닐하우스의 운영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운영자가 부재한 상황). 여기에

15) 위와 같음.

더해 현지 당국에 의해 세무, 소방문제가 발생했고, 모든 행정상의 부담이 현지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 겹쳐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고려인협회 김게르만 부회장(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교수)은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 "2월~3월 파종과 재배를 시작해서 제철(봄) 판매를 통해 수익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절한 시점에서 한국측이 개입을 중단하고 고려인협회의 자체 운영에 맡겨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와준다'는 생각보다는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고려인 지원사업을 수행해나가야 한다. 나아가 장비 지원보다는 차라리 현금지원을 하는 방안도 향후에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지원된 목돈을 현지은행에 예치한 후 현지 은행의 높은 이자율(10% 이상)을 이용해서 운영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의 경우, 재정문제가 매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믿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한국측에서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최대한 빨리 운영권 문제를 매듭지은 후 비닐하우스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16]

2) 키르기즈스탄 지역

① 농업활동(지원) 상황

키르기즈스탄 고려인 사회에도 2011년에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고려인 농업지원 및 발전을 위해 21만 6천불이 투입되었다.[17] 이를 통해 당해 2012년 봄에 키르기즈스탄 추 주(州) 소콜룩지구에 한·키 영농기술센터(비닐하우스 1동)가 만들어 졌다. 2011년 9월 공개입찰 형식을 빌어 카자흐스탄 비닐하우스 참여했던 시공업체가 다시 참여해서 비닐하우스 영농기술센터가 건립된 것이다. 현재 키르기즈스탄의 고려인 비닐하우스 영농기술센터는 고려인 신 고바르드(사업가, 전 시의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다.

▲ 한-키르기즈 영농센터 개소식(2012)
(출처: 키르기즈스탄 고려인 실태조사보고서
/2012.12.12/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② 문제점 및 해결방안(정책적 모색)

카자흐스탄 우쉬토베 내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운영사업과 달리 키르키즈스탄의

16)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김게르만교수 인터뷰(2012.7.23일).
17) 키르기즈스탄 고려인 실태조사보고서(2012.12.12),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33쪽.

경우는 현지조사 결과 불협화음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졌다. 하지만 정확한 진실을 잡아내지는 못했다. 다만 비닐하우스 사업과 관련한 두 개의 시선이 있어 소개해 보고자 한다. 현지실태조사 결과물로 공개 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려인협회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무난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이 지원해 주었지요. 고려인들이 농토를 활용하여 일을 할 수 있어서도 좋은 사업이지요. 고려인들은 농사를 지을 줄 알지요. 전에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지요 비록 현대식 온실은 아니었지만요. 아마 이 시설은 농작물 수확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전망 또한 좋습니다. 시험재배도 좋았고 한국대사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우려되는 하나 큰 문제는 바로 수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카자흐스탄의 사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런대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경우라도 이번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점에 대해 한국대사관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려인협회 최발레리 회장, 2012년 7월 19일)".[18]

그런데 필자가 거칠게나마 또 다른 관계자를 통해 알아 본 바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영농기술센터의 설립과 특히 운영과정에서,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할 고려인협회는 해당 사업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못해왔다. 어떤 과정을 거쳐 해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른 채 사업의 운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영농센터 설립 진행과정에서 대사관에 문의했으나 대사관측은 '고려인협회는 영농기술센터 운영 능력과 자격이 없다. 비쉬케크 청년포럼에서 대신 운영할 것이다'고 답변을 주었다. 영농기술센터는 전임 고려인협회장으로부터 18,000불에 매입된 땅에 세워졌는데, 이 모든 과정이 신 고바르드(센터 대표)와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신 고바르드와 한국대사관 간에 2011년 5월 28일자로 계약이 되었고, 계약의 주체가 대사관이 아닌 국정원 직원 김00로 되어 있다. 사업 추진 주체인 재외동포재단과 한국대사관, 그리고 국정원 직원의 비상식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영농기술센터의 운영권이 고려인협회가 아닌 한 개인(신 고르바드)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현재 고려인협회와 관계자들은 황당해 하고 있다".[19]

18) 위 보고서, 31쪽.
19) 인터뷰에 응해 준 구술자의 요청으로 부득이 출처를 밝히지 않았음에 양해를 구한다.

앞서 언급한 보고서는,

"키르기즈스탄 영농기술센터는 해당 지역 고려인과 한국정부가 협력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넓은 지역에 한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현지 고려인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단지 고려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키르기즈인 등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한 영농기술센터로 출발한 것은 민족적 화합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지나친 고려인만을 위한 지원정책은 현지 다민족 국가의 정서를 볼 때 위험한 것임이 우크라이나의 경우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은 일종의 협력투자이며 그 결실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단시일 내에 협력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성급한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3~4년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관찰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20]

고 평가하며 끝을 맺고 있다. 필자 또한 보고서의 결론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다. 다만 해당 사업을 두고 전혀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에 고려인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편하지 않을 뿐이다. 필자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숙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다만 진정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남아있다면, 그 당사자들이 지혜롭게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결과적으로는 당초의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를 통해 키르기즈스탄 고려인 농업이 발전하고, 영농기술센터가 한국과 키르기즈스탄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해주는 또 하나의 가교역할을 해 주기를 희망해 본다.

Ⅲ. 한국어 교육 및 예술문화활동 지원 문제

1. 러시아 연해주 지역

① 한국어 교육 · 예술문화활동 상황 및 문제점

연해주 지역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 아르촘과 우수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 내의 한국어강습반과 가무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해주 고려인 사회의 중심은 수도인 블라디보스톡보다는 지리적으로 더 북쪽에 있는 우수리스크에 자리잡고 있다. 이는 1860년대 이주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역사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소련 붕괴 이후 이곳 우수리스크 고려인 사회를 대표하는 조직들은 '연해주한인재생기금' 건물에서 2009년 말에 새롭게 단장된 고려인문화센터에 최종적으로 자리를 잡았

20) 키르기즈스탄 고려인 실태조사보고서(2012.12.12),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31-32쪽.

▲ 우수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

다. 고려인문화센터는 동북아평화연대(이하 '동평')와 한국정부를 대표하는 블라디보스톡 영사관을 건립 추진체로 하고, 한국 정부(외교부, 재외동포재단)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세워졌다.[21] 고려인문화센터 산하에는 우수리스크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와 고려신문, 아리랑가무단, 고려인역사관과 한국어강습반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한글강습반의 경우 수강생이 100여명에 이를 정도로 한국어강습소로서 자리매김 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수강생이 100여명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블라디보스톡 한국교육원이나 코이카 단체 등으로부터 상시적인 인력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웅장한 건물 내에 있어 겉은 화려해 보이나 실상은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강습반이 원하는 것은 금전적 지원보다는 제대로 된 상시적인 한국어 교사 인력을 지원받는 것이다. 도움도 가장 필요할 때 해야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른 시간에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 갈 사안이 있다. 고려인문화센터 건립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주체들 간에 완공 이후 고려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합의사항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즉 한국정부 측은 고려인측에 센터의 운영을 위임해 버렸고, 당초 합의되어 왔던 운영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동평의 핵심 관계자들은 러시아당국에 의해 추방당하는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고려인문화센터 산하 조직들에 대한 지원문제는, 장기적으로는 동평과 블라디보스톡영사관(외교부), 고려인측(고려인문화센터) 간에 존재하는 미묘한 갈등해결이 근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과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예술문화활동과 관련, 우수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 산하 아리랑가무단(단장-김발레리야)과 아르춈 칠성가무단(단장-김타티아나)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아리랑가무단은 가장 조직적인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전문적인 가무단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반면 칠성가무단의 경우 아직은 조직과 운영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가무단은 소비에트 시절 1950-80년대 알마타의 고려극장과 순회공연단인 아리랑가무단을 추축으로 각지의 고려인 집거지들에서 활동했던 소인예술단이 다시 부흥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단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소비에트 시기에 타쉬켄트와 알마타의 고

21) 건립 마지막 단계에서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전직 우수리스크 시의원 김 니콜라이의 지원이 있었고, 현재 운영과정에서도 김 니콜라이의 실제적인 운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고려인문화센터의 소유와 운영문제와 관련, 미묘한 갈등상황이 존재하고 있다.

려극장과 아리랑가무단, 그리고 각지의 소인예술단들이 고전물(춘향전, 심청전, 장화홍련전, 흥부와놀부, 이수일과심순애 등)을 소재로 한 연극이나 민요, 춤과 무용(부채춤, 항아리춤, 칼춤, 궁중무 등)[22]을 통해서 고려인 공동체를 위로하고 한민족의 예술적 혼을 계승해 나갔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스파이', '불온한 민족'의 혐의를 안고 살아가는 고려인 이주자들에게는 큰 희망과 위안을 주었고, 오늘날 독립국가연합 한민족 고려인의 정신문화를 지켜나가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 1950-70년대 고려극장 아리랑가무단 물동이춤-출처:카자흐스탄국립중앙영상및음성기록물보관소

▲ 아르춤 칠성가무단의 부채춤 공연 준비 모습

▲ 우수리스크 아리랑가무단 공연 모습-출처:http://blog.daum.net/mutual/616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예술단들은 여러 면에서 여전히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언급한 예술단들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①-1. 전통적인 공연(연희)예술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습득 문제이다.

1980년대 말까지 고려인 사회는 이념적인 문제로 일방적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유지해 올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공연과정에서는 대부분 북한식의 춤사위들이 공연되어지고 있다. 물론 소련 붕괴 이후 20여년 동안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되었다고 하나 그 수준이 낮다. 무엇보다 체계적이지 못하고, 여전히 북한식 춤사위가 더 많이 선보여지고 있다. 게다가 예술단원들이 습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전통 춤사위들이 어느 정도 고유의 모습과 동작(원형)을 간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②-1. 한민족의 전통적인 공연(연희)예술 전문인(전수자) 육성 문제이다.

현재 아리랑가무단이나 칠성가무단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원들(고려인 노인단이나 부인회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인예술단원은 제외)의 경우, 주로 대학 진학 이전의 중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단원들 대부분이 학업과 예술단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 또한 대학진학 이후에는 그만두거나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생계문제와 맞물려 해당분야에서 전문가, 나아가 전수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기에는 취약한

22) 이에 대해서는 〈카자흐스탄국립중앙영상및음성기록물보관소〉에 소장된 고려인 관련 영상물(카자흐필름 제작)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② 해결방안 및 정책적 모색

우선 고려인문화센터 내 한국어강습반과 고려인문화센터 운영권 문제를 둘러 싼 갈등문제를 보자.

필자의 좁은 소견으로는, 한국어강습반이 안고 있는 상시적인 한국어 교사나 전문가 수급 문제는 블라디보스톡 한국교육원이나 코이카를 통해 지원의 실마리를 푸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강조했듯이, 한국어 세계화를 외치는 시점에서 러시아 고려인의 중심도시인 우수리스크에서 수강생이 모여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상황이유를 들어 상시적인 교사수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랫동안 우수리스크 내 NGO 단체(동북아평화연대)에서 활동해 온 바 있는 김현동 대표(현재 사회적 기업 '바리의 꿈' 대표)는, "물론 블라디보스톡 한국교육원의 한국어강습반에 대한 단발적인 파견지원은 있었다. 하지만 지속적이지 못했고, 프로젝트성 지원만이 존재했다"[23]고 언급하고 있다. 한때 한국어에 대한 높았던 관심과 열기가 어느 새 식어가는 지역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재외한인정책를 주도하고 있는 외교부를 비롯, 해당 문제와 관련한 정부 주무기관이 신속한 대책과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한편, 고려인문화센터의 소유와 운영권을 두고 빚어진 미묘한 갈등은 결과적으로 고려인사회에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

현재 고려인문화센터의 발전과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측의 실제적인 창구는 블라디보스톡 영사관이다. 전체적으로 고려인문화센터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한국측과 고려인문화센터 내의 핵심운영조직인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그리고 동북아평화기금 간의 미묘한 입장과 갈등상황을 현 시점에서 외교부가 조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연해주 당국의 외교적 조치로 추방조치를 당하고 비자문제에 막혀 연해주 현지에 재입국을 하지 못하고 김현동 대표는 인터뷰 말미에서 "외교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차분한 목소리로 전해왔다.[24] 진정으로 고려인 사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한국어 교육과 예술문화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정부나 민간단체, 그리고 고려인 사회 간의 보이지 않는 주도권 싸움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주체가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상황을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23) 전 연해주 동북아평화기금 김현동 대표 인터뷰(2012.5.20일).
24) 위와 같음.

마지막으로, 연해주 예술문화활동 단체들, 즉 소인예술단들에 대한 이전과는 다른 정부주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

오늘날 소인예술단들에 주목을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한민족 고려인 사회의 전통문화유산의 한 부분을 책임져 나가고 있는 주체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연예술(연행) 부분에서 그 역할이 뚜렷하고 가시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약 150년의 이주개척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 독립국가연합 고려인들은 전통적 공연예술(연행), 의학[민간요법] 및 농경 · 어로, 구전전통, 의식주 및 세시풍습, 민간신앙 및 통과의례, 전통적 놀이 · 축제 등의 분야에서 값진 한민족의 문화유산, 즉 역사문화자원들을 생산해 왔다. 이에 대한 가시적인 확인은 문헌, 사진, 영상 등이나 실물자료(의류, 음식, 민요공책, 키, 체, 맷돌, 디딜방아, 농기구, 떡메/떡구시 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유랑의 역사 속에서 살아 온 고려인의 전통문화유산들은 원형과 변형의 경계사이에서 많은 부분이 소실, 훼손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민족 고려인의 전통문화유산으로 계승되어 오며 고려인 사회의 정체성을 크게 일깨워주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주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관련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①-1. 정부 관련 기관 주도의 소인예술단 초청, 혹은 방문 프로그램(3~4주)의 운영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한 내에 초청이든 방문이든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단순한 전통공연(연희)이 아닌 무형문화유산의 범주에 속해있는 내용들을 최고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한민족의 전통 공연예술(연희)에 대한 계보와 체계를 전하고, 고려인 예술단원들로 하여금 정확한 춤사위와 동작 등을 습득케 하는 것이다.

②-1. 국내 관련 대학(공연예술분야) 입학지원을 통한 전문인(전수자) 육성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고려인 소인예술단원들의 경우 주로 대학 이전의 중고등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생계문제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해당 분야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불투명하고, 지속해 나간다하더라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 관련 기관이나 혹은 재외동포 대상 장학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재외동포재단, 국립국제교육원 등)에서 공연예술(연희) 분야 예술단원-학생들에게도 국내 관련 대학(공연예술분야)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습득력이 좋고 장래를 고민하고 있는 연령기의 예술단원-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한국 내 관련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장학 프로그램이 주어지는 것만큼 더 큰 동기부여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이어 대학과정에서도 전문분야를 이어가게 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체

계적인 학습과 능력배양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나아가 자신들의 터전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저마다의 위치에서 한민족의 전통문화유산을 계승 및 전수해 나갈 수 있는 전문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에도 분명 의미있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지역

1) 한국어 교육 지원 상황 및 문제점

① 우즈베키스탄 지역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경우 이웃한 카자흐스탄에서 보다는 한국어와 한류에 관심이 높다. 이는 고려인 뿐만 아니라 현지인에게도 해당된다. 타쉬켄트 한국교육원의 수강생 비율도 점차 현지인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의 경우도 한국어과는 나름 인기가 유지되고 있고, 한국어과 졸업 이후에는 아직은 그런대로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있는 학생들의 규모도 카자흐스탄 출신보다는 압도적으로 많다.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독립국가연합 출신 대학생들의 출신지를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즈스탄 출신의 고려인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많다. 고려인 젊은이들의 집중적인 모임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한 대형교회의 예를 들어 보자. 가령, 온누리교회의 경우, 러시아어 예배에 나오는 독립국가연합 출신 고려인 청년 90여명 중 절대 다수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며, 카자흐스탄 출신은 극소수이다.[25] 사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어 뿐만 아니라 한류, 특히 최근에는 K-POP에 대한 인기가 하늘을 지르고 있다. 최근 키르기즈스탄(비쉬케크)에서는 한국대사관(대사 김창규)과 민주평통 키르기즈지회(회장 전상중)가 공동주관한 K-POP대회에 2천 여명이 몰려 뜨거운 열기 속에 대회가 진행되었다.[26] 이러한 열기와 관심이 있기까지 현지 한국교육원과 타쉬켄트 세종한글학교(세종학당으로 지정), 또한 각지의 고려인 한국어 교사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한국어와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가 있는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도 점차 우려스런 상황들이 도래하고 있다. 즉 낮은 교사 월급(월 80-100불)으로 인해 사범대 출신 젊은 교사들이 교직을 기피하거나 40~60대 교사들도 기회만 있으면 학교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27] 또한 한국교육원이 한국어 교육 외에 수강생들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한국어 교사들을 교직에 붙잡아 둘 수 있는 지원책은 부족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현재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을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25) 온누리교회 소속 〈온누리미션〉 간사 조미정 인터뷰(2013.4.29일).
26) 『재외동포신문』, 2013.4.23일자, 「몰려도 너무 몰린 키르기스 K-Pop대회」(http://blog.daum.net/kkrkk3/7954929, 2013.4.28일 검색).
27) 한국외대 사학과/문화콘텐츠학과 임영상교수(독립국가연합 고려인연구자), 인터뷰(2012.5.18일).

현상을 개선시켜 나갈 진지한 고민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② 카자흐스탄 지역

▲ 알파라비 카작국립대 국제관계/ 동방대학(한국어과 소속) 전경

카자흐스탄 고려인 학생-청년들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도는 우즈베키스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론 처음부터 낮은 것은 아니었다. 2012년도 현재 알마타 시내에 한국교육원을 제외하고 2곳에서 고려인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어 교육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소수의 고려인 학생들만이 공부를 하고 있을 뿐이다. 대학으로 넘어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카자흐스탄국립대 한국어과의 경우, 2012년도 현재 학과 총정원 150명 중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고려인 학생은 놀라울 정도인 2-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타민족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28] 게다가 이제는 독립학과에서 일본어학과와 통합되어 통합학과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는 예전의 높았던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열기, 그에 비례되는 만큼의 고려인 지원자가 이어지지 못하는 데에 따른 위상의 하락이라고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 교육상황은 이웃한 우즈베키스탄에 비해 더 우울하다. 비록 겉으로는 드러나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금방 알 수 있다. 물론 고려인의 빈자리에 타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어 위기라고는 볼 수 없으나 정작 한민족 고려인에 의해서 한국어가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우선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로 전반적으로 높아진 생활수준을 들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주변국들에 비해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즉 물가수준도 높고, 주변국 노동자들이 돈벌이 입국을 많이 할 정도로 일자리도 많다. 생활수준이 높아진 만큼 한국이나 주변 선진국권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나 진출 또한 잘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관계로 한국에 체류 중인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 유학생이나 노동자의 대부분은 비 카자흐스탄 출신이 대부분이다. 높아진 생활수준 속에서 자연스레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열기도 식어진 것이다.

둘째로 수준있는 원어민(한국인) 강사진의 불안정한 수급과 현지인 강사진의 낮은 봉급 수준을 들 수 있다.

28)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전 학과장 염나탈리아 인터뷰(2012.5.25일).

원어민 강사진의 불안정한 수급은 카자흐스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낮은 월급(120-130불)은 강의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 어느 국가에서든지 낮은 봉급으로는 양질의 교사가 제대로 배출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생활고를 당하지 않으려 처음부터 전공과 진로를 변경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가르치는 자와 배우자 양자가 한국어 교육과 학습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려인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의욕은 크게 줄었고, 나아가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현지 한국인(특히 사업가)과 한국 업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들 수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외교부 집계 2,500여명의 한국인 교민사회가 형성되어 있고,[29] 한국인 사업가 및 업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이들이 카자흐스탄 고려인 젊은이들의 비호감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김게르만 교수는,

> "무엇보다 직장이나 기타 상호관계에서, 카자흐스탄 체류 일부 한국인들에게서 비상식적이고, 비교양적인 언행이 나타나고 있다. 또는 차별적 행동과 언어폭력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고려인 젊은 층에게 한국과 한국인, 나아가 한국어에 대한 비호감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30]

며 일부 한국인과 업체들의 비상식적인 언행을 꼬집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포함, 중앙아시아 진출 한국인들의 종사업종 중에 술집형 카라오케(노래방) 사업이 동종 현지인 사업자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인이 가는 곳이며 어김없이 등장하는 카라오케 사업은 윤락사업과도 직결되어 있어 결코 한국인에 대한 인식과 위상 문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 해결방안 및 정책적 모색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점들 중 낮은 봉급에 다른 한국어 강사진의 사기저하 문제는 두 지역 공통이므로 통합해서 고민을 해 볼 수 있다. 즉,

① 소액의 연구비 지원프로그램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고려인은 소수민족이니만큼 해당 국가의 정부차원에서 한국어 발전 및 교강사 인력 육성에 별도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해당 지역을 포함,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사회에서 한국어

29) 카자흐스탄 개황(외교부, 2008).
30)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김게르만교수 인터뷰(2012.7.25일).

강좌 활성화와 초중등학교 및 대학 내 강사진 육성을 위해서는 한국정부에서 나서서 지원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고려인 교사들이 고려인 사회 차세대교육의 선봉역이라는 점에서 고려인 사회 역사기록을 할 수 있는 연수와 지원(연구비) 방안수립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오랫동안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문제를 연구해 온 한국외대 임영상 교수는,

> "기존의 한국교육원을 통해 지원되는 한국어 교사 지원비는 그대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런 한편으로 교사들이 고려인 사회의 역사와 원로 고려인의 구술생애를 기록할 수 있는 기초자료수집(안)을 신청하게 하고, 그에 따른 특별연구비를 지급하는 것도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31]

고 언급하고 있다.

다음은 카자흐스탄 지역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다.

② 한국체험 및 한국어 단기학습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이다.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비해 카자흐스탄 고려인 학생 및 청년들의 한국어에 대한 낮은 열기 및 관심과 관련, 김게르만 교수는,

> "한국정부 차원에서 카자흐스탄 고려인 학생 및 청년들이 최소한의 한국어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2주, 혹은 4주짜리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폭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어과 학과장이자 한국학센터장 자격으로 이 문제와 관련 한국 내 대학들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고려인 학생들이 한국어를 기피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32]

며 한국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현실성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③ 해외 진출자들을 상대로 한 출국 전 최소한의 기본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다.

필자는 해외 진출자들에 대한 사전 기본교양교육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는 그만큼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언행이 심심치 않게 발생해 왔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김게르만 교수는,

31) 한국외대 사학과/문화콘텐츠학과 임영상교수(독립국가연합 고려인연구자) 인터뷰(2013.5.18일).
32)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김게르만교수 인터뷰(2012.7.25일).

"한국정부 차원에서, 특히 현지인과의 대인관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출국 전 기본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장이나 고용관계에서 한국인들에 의해 고려인이나 타민족 피고용인들에게 우월감에 찬 민족적 비하 발언이나 차별이 표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같은 한민족으로서 얼굴이 화끈거린다"[33]

라며 일부 몰지각하고 개념없는 한국들의 언행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현지 체류 한국인들에 대한 실망과는 반대로 한국과 본토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좋은 편이라고 한다. 따라서 고려인 청년들이 한국에서 단기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를 익히게 하고, 동시에 체험을 통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불신감을 불식시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김게르만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3. 기타 지역

1)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지역

▲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 학습 중인 러시아인들의 모습

하바로프스크(하바로프스크변강주 행정 수도)는 본래 1884년 시베리아 행정개편으로 동시베리아 군관구에서 분리 신설된 프리아무르(극동) 군관구의 행정 중심이었다. 물론 지금도 하바로프스크 시내(푸쉬킨 거리 39번지)에는 과거의 위용을 자랑하듯 붉은색 벽돌로 된 프리아무르 군사령관지사의 관저가 그 모습 그대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블라디보스톡과 더불어 극동의 실제적인 정치-경제의 중심도시로서 기능해 오고 있다. 하지만 한민족의 거주 규모와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과거 한인들의 거주 규모나 오늘날 한인, 즉 고려인들의 거주 규모로 볼 때는 하바로프스크는 그 위상과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 대신 이주 사할린 한인사회가 크게 형성되어 기존의 고려인 사회와 어우러져 있다. 이웃한 연해주에 비해 고려인 인구는 훨씬 적으나 하바로프스크 국립사범대학교(5년제 석박사통합과정)를 중심으로 나름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육원이 상주하고 있어서 한국과 한국어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상대로도 어느 정도의 교육과 지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소련 붕괴 이후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바로프스크 내 고려인의 한국어 교육

33) 위와 같음.

및 예술문화활동 상황에 대해서 재점검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초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기서 예술문화활동은 차치하고, 하바로프스크 국립사범대학 동양학부 한국어과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현황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자.

현재 하바로프스크 국립사범대학교는 하바로프스크 한국교육원의 지원범위 안에 있다. 한국교육원은 학생과 학과측에 한국어 실습과 기자재(복사기 등) 제공, 한국 유학 및 장학혜택을 제공하는 등 하바로프스크 고려인 청년세대 한국어 교육 지원에 협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학교의 전체적인 한국어 교육 및 그에 따른 내부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다. 대학 졸업 이후 열악한 임금을 받으면서도 굿굿하게 10여년 넘게 학생들과 함께해오고 있는 이 나제쥐다 교수는 한국어 학습환경과 관련해서,

▲ 하바로프스크 국립사범대학교 한국어과 이 나제쥐다 교수

> "현재 동양학부 한국어과의 전 학년 재적생 수는 전성기 때 60여명 수준에서 절반인 3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동양학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한국어보다는 중국어과나 일본어과 쪽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1, 2학년 때는 그나마 관심과 열기를 갖고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고학년에 들어서면서 열기와 관심이 동반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졸업 이후 진로와 취업문제가 한국어과 졸업생들에게 불투명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즉 졸업 이후 진로와 취업문이 막히며 한국어에 대한 인기와 열기는 식어가고 있고,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낮은 상황에서 한국어는 비인기 과목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현실이다"[34]

고 강하게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교강사진과 관련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이 나제쥐다 교수는,

> "한국어과 교강사진의 수는 한때 6명이 유지가 되었다. 현재는 4명(러시아인 2명, 고려인 2명)의 교강사진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나마 언제든 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교강사진의 월급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초중등학교나 대학 교원들의 임금수준이 열악하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향후 한국어과 유

34) 하바로프스크 국립사범대학교 한국어과 이 나제쥐다 교수 전화인터뷰(2012.5.23일/2013.4.27일).

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더 있다. 한국어과에 한국인 출신 원어민 강사는 처음부터 없었고, 게다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 등의 공식 기관을 통한 인력지원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강사진의 한국어 실력 또한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35]

며 더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사실 하바로프스크 국립사범대학 한국어과가 처한 지금의 상황은 해당 학교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한때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의 인기는 매우 높았었다. 하지만 그 열기가 많이 식은 상황이다. 그 이유는 하바로프스크에서와 유사하다. 한류와 한국학의 인기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끌어 다시 끌어 올려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은,

① 한국어 교강사진에 대한 상시적인 인력지원과 보강을 들 수 있다.

해당 지역은 연해주보다 더 소외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육원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시적인 원어민 강사가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도시의 위상이나 미래를 볼 때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 게다가 러시아 지역이 코이카의 활동영역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재고려사항 중의 하나라고 본다. 이 나제쥐다 교수는 독립국가연합 내 타 도시들에서처럼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하바로프스크에도 코이카 단원들과 같은 한국어 지원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해 세종학당재단이 정식 출범을 하고, 2012년도 한 해에만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와 카자흐스탄 탈디쿠르간을 포함 14개 지역이 추가가 되었으며,[36] 현재 43개국 90개소에 세종학당이 개소되어 한국어 교육과 보급에 힘을 쏟고 있다.[37] 그런 면에서 '풍요 속의 빈곤'을 맛보고 있는 극동의 중심 도시 하바로프스크는 모순적인 상황 속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또 하나는 한국 초청 교강사 연수프로그램의 활성화이다.

2000년 6월부터 재외동포재단의 주관으로 독립국가연합(CIS) 한국어 교사 연수사업이 가동되고 이다. 해당 초청 사업을 확대하여 소외지역의 일선 교강사진들이 혜택을 누릴 수

35) 위와 같음.

36) 세종학당 14개 더 생겼다, 총 43개국 90곳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723_0011297318&cID=10101&pID=10100; 2013.4.27일 검색).

37) 세종학당재단 홈페이지(http://www.sejonghakdang.org/nuri/sjs/form/SJS_Greetings) 참조(2013.4.27일 검색).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필자 또한 본 사업의 첫 해에 강사진에 포함되어 1개월 동안 활동한 바 있다. 이 나제쥐다 교수의 경우는 2001년도 초청사업으로 연수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동료 교원들의 경우도 한국어 구사능력이 수준급이 아니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을 포함해서 한국에서 연수과정을 다시 밟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③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의욕 고취를 위한 정부차원의 진지한 고민과 대책 마련이다.

러시아 내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낮은 임금수준은 교육의 낮은 질과 교육종사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 질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어 학습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과 열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우려스런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바로프스크는 극동에서 제일 큰 대도시이자 중심지이다. 이웃 도시인 야쿠츠크 등, 주변 도시들에서도 해당 한국어과로 진학을 하고 있다. 명색이 극동의 중심 대도시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것은 하바로프스크 뿐만 아니라 이곳으로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타도시의 예비 진학준비생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참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학 졸업 이후 진학 및 취업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와 현지 한국교육원, 교민 기업인 단체 등의 다각적인 노력과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꺼져가는 불씨는 물리적으로 다시 살리기 쉬워도 식어버린 사람의 관심과 열정을 되살리기란 몇 배로 힘이 들기 때문이다.

2) 러시아 야쿠츠크 지역

러시아 내 소외지역 중의 하나로 하바로프스크변강주 북부에 위치한 야쿠츠크(사하(야쿠티야)공화국 행정 수도)를 들 수 있다. 이곳은 러시아 내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40도가 넘는 최 변방 중의 한 곳이다. 이곳에는 현재 1,800여명 정도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고,[38] 행정 중심인 야쿠츠크에는 대략 5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39] 야쿠츠크에서 한국어 교육의 중심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1994년 11월에 문을 연 사하한국학교(11년제 초중등학교)와 이후 한국과의 교류가 더 활성화되면서 2000년도에 개설된 야쿠츠크 국립대(5년제) 한국어과이다. 제정러시아 시절에 정치범이나 죄수들의 유형지로서 이름을 떨

▲ 야쿠츠크 사하한국학교 전경

38) 재외동포현황(외교부, 2010). 실제 거주자 규모는 2002년도 러시아인구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39) 이광규, "사하공화국 고려인 연구 시안," 『재외한인연구』제23호, 2011, 355쪽. 외교통상부 자료(2010)에 자료에 따르면, 야쿠츠크 거주 전체 고려인의 규모가 1800명에 달한다. 따라서 현재 수도인 야쿠츠크에는 더 많은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가 1994-5년 거주할 당시에도 야쿠츠크 거주 고려인의 규모는 500명 정도로 집계되었었다. 물론 고려인 인구가 더 감소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쳤고, 지금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서 이주 및 근무를 꺼리는 이곳에도 한국어 학교가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뿌듯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하한국학교는 1994년 야쿠츠크 시교육위원회의 발의로 설립되었다. 개교 전에 경희대학교 측과 교사수급과 관련 첫 접촉이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변동으로 우여곡절 끝에 한국외대(노어과) 측과 접촉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개교 이후 현재까지도 한국외대(노어과) 측과의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 학부생이었던 필자는 1기생으로 선발되어 사하한국학교에서 한국어와 역사 · 문화를 가르치며 교사로 활동한 바가 있다.

1995년 2월 28일 火曜日

러 사하共서 한국어 교사 활동

金德圭-李秉造 씨

한겨울이면 기온이 영하 7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의 땅 사하공화국. 러시아연방에 속한 이 나라의 수도 야쿠츠크에서 한국의 혼을 심는 젊은이들이 있다. 지난해 9월 이역만리 낯선 땅에 분을 연 사하-한국인학교에서 한국어·한국문화 교사로 활동중인 金德圭-李秉造씨(24)가 그 주인공들.

한국외국어대 러시아어과 89년도 입학 동창생인 이들은 사하공화국의 초청으로 지난해 8월, 1년 계약으로 이곳에 왔다. 스탈린의 강제 이주정책으로 떠밀려 온 1천5백여 한인들이 89년 한인협회를 구성한 뒤 한인문화의 복원을 위해 개교한 이 학교의 학생수는 1백48명. 이중 한인 학생수는 15% 정도에 불과하다.

『이 나라 사람들은 한국을 「꿈의 나라」로까지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하나같이 한국을 방문해 보는게 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인지 입학 경쟁률도 치열합니다. 러시아나 이곳 원주민인 야쿠트족의 유력인사나 재력가의 자녀들도 입학을 많이 합니다.』(金德圭) 이들은 한글의 자·모음부터 우리나라의 역사 등을 전통문화, 심지어 태권도까지 가르친다. 그래서 얻은 별명은 「한국학 박사」. 왜소한 체격의 李秉造씨는 태권도의 발차기를 가르치다가 근육을 다치기도 하는등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李씨는 『그래도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학생들을 보면 힘든줄 모른다』고 했다.

◇1학년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金德圭(왼쪽)-李秉造씨. 【야쿠츠크=李德奭기자】

"한국의 혼 심는 일… 자랑스러워요"

국가로부터 집을 제공받고는 있지만, 월급은 우리 돈으로 12만원 정도. 그래도 이곳 사람들의 평균 월급보다는 많다며 만족해 한다. 정작 이들이 걱정하는 건 한국어 교재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동화책이라도 한권 읽을 수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디오테이프로 한국의 고궁과 사계절의 아름다움도 보여주고 싶구요….』

【야쿠츠크(사하공화국)=慎亨淳기자】

▲ 사하한국학교 교사활동 시절(사진 우측) 동료, 학생들과 함께/1995.2.28일/조선일보

2011년도 현재 사하한국학교의 교원은 20명이고, 학생이 320명이며, 교실이 부족하여 2교대 수업을 하고 있다. '한국' 학교이지만 고려인 학생은 전체의 1.24%에 불과하고 대부분 현지 야쿠트인이나 러시아인 학생들이다. 한국어 외에 학교에서는 한국의 악기와 음악, 그리고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5~11학년까지 의무적으로 하루에 2시간씩 한국어 수업이 진행된다. 또한 5~8학년까지 초급반에 60명, 8~9학년까지 중급에 60명, 10~11학년 고급반에 60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참고로 영어는 8학년까지 주 3시간 수업을 한다.[40]

한편 야쿠츠크국립대 한국어과 또한 지역사회에서 한국어 보급에 큰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다.[41] 한국어학과는 동양어학부에 속하여 있는데, 동양어학부는 중국어학과, 일본어학과, 한국어학과로 이루어져 있다. 2011년도 현재 한국어학과는 총 5명의 교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 수는 총 35명이며 매해 5~8명 정도가 입학을 하고 있다. 한국어학과에서는 주당 8~10시간씩 한국어 수업을 하며, 교재는 주로 한국에서 가져 온 것을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에서 만들어 쓰기도 한다.[42] 2005년에 8명의 첫졸업생이 배출되었는데, 이중 일부가 한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2012년 2월에 사하한국학교와 야쿠츠크국립대학교

40) 이광규, 위의 글, 358쪽.

41) 사하한국학교의 발전과정에서도 그랬듯이, 야쿠츠크국립대학교에 한국어과가 개설되는 데에는 현지 관계기관과 특별히 한국외대 강덕수 교수(노어과)의 노력이 컸다. 또한 1994년 사하한국학교 1기 교사진(김행근, 전덕규, 이병조)를 비롯, 20년동안 활동해 온 매 기수 교사진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42) 이광규, 앞의 글, 358쪽. 한국어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한국어 문법론, 문체론, 음성학을 배우고 있다. 또한 야쿠츠크국립대학교 한국어과와 한국외대, 대진대, 조선대 등이 학술교류를 통해 서로 교환학생을 파견하고 있다.

한국어과 출신의 첫 박사(코뱌코바 울리아나)가 배출되었고, 캐나다에서 포스트닥터 과정을 거친 후 얼마 전 국내에 들어와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대로 사하한국학교이든 야쿠츠크국립대학교 한국어과이든 이제 제 위치에서 무난하게 자리잡아 나가는 듯 보인다. 필자는 대학 한국어과의 경우 자연스런 과정을 거쳐 개설된 사례이고, 대학 당국에 의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되어가는 만큼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하지만 설립 첫해 1기 교사진으로 참여한 바 있는 필자가 보기에 사하한국학교의 경우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본래 사하한국학교는 당시 이미 특수학교로서 성공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던 사하터키학교를 벤치마킹하여 일반 쉬콜라(11년제 초중등학교)가 아닌 특수학교의 위상과 지위를 갖고 설립된 학교였다. 개교 당시 이 학교에 대한 지역 고려인들의 기대와 희망은 매우 컸다. 타지역에 비해 고려인의 규모가 적고, 또 고려인협회의 활동이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시베리아 변방에 사하한국학교를 세운 것은 야쿠츠크 시교육위원회의 숨은 의도와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의 착각이 아니라면, 경제적으로 부강한 한국측(특히 정부와 기업인 및 기업체)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사하한국학교를 지역의 명문학교로 키워보자는데 있었다.[43] 하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지원을 약속한 극히 일부 기업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한국측의 반응은 냉담했다. 특히 소련 붕괴 이후 1990년대 초기에 야쿠츠크를 방문하여 이런 저런 물질적 지원을 약속했던 기업인이나 사업가, 특히 정치인들의 안면몰수식 반응은 참담함과 더불어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었다.

필자가 알기로, 한국어가 모든 학교운영의 기준이자 중심이었던 초기 몇 년 동안과는 달리 현재 사하한국학교는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 지위로 하락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언급한대로 기대했던 것만큼의 지원이 한국측으로부터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원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던 개교 몇 년 동안 현지 파견된 교사진들은 항상 물심양면으로 넘치는 관심과 대우를 받았었다. 하지만 차차 그러한 관심과 대우는 식어갔고, 한국어 또한 지금은 필수과목이라기보다는 선택과목에 가깝게 지위가 하락해 있다. 게다가 초기와 달리 저학년에서는 제대로 된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공간이 부족하여 아직까지도 2부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20년 동안 나름 자리를 잡아오고 있으니 큰 문제될 것이 없다고 꼬집을 수 있으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 혹자는 사하한국학교를 모스크바에 있는 1086학교에 비유하고 있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는 20년이 지난 현재 학교의 건물 모습만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 개교 초기 2층 단독건물로 시작된 학교가 지금은 3층으로 바뀐 것 외에 달라진 것은 별반 없어 보인다. 게다가 본래 기반이 약한 오래된 구 건물에 증축이 이루어져 교사와 학생들의 안

43) 이러한 의도와 기대는 필자를 포함한 1기 교사진(김행근-교장 직무 수행)이 야쿠츠크 시교육위원회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한국에 재파견되어 임의의 기업체나 기업인, 또 과거에 야쿠츠크 시교육위원를 방문하여 지원약속을 했었던 일부 기업인/사업가들을 대상으로 사하한국학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파악 및 인지할 수 있었다.

전문제에도 적지 않은 우려가 되고 있다고 한다.

사하한국학교는 한국측이 아닌 현지 시정부에 의해 자발적으로 '한국' 이라는 간판을 걸고 시작된 학교이다. 그런 만큼 초기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사하한국학교 또한 모스크바1086학교처럼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세계 방방곡곡에 세종학당을 열고 한국어를 알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필자는 바로 그만큼의 관심과 지원을 투입시킨다면, 사하한국학교의 본래의 위상과 지위 또한 찾아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비록 시작은 한국 측의 정부기관과는 무관하게 시작되었다고 하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하한국학교를 극동-시베리아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기관으로는 최고의 명문 쉬콜라(11년제 초중등학교)로 변모시켰으면 하는 바램이다.

Ⅴ. 맺음말

이상에서와 같이 현재 독립국연합 고려인 사회에서 수행되어 온 고려인 지원사업의 상황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정책적 모색)을 고민해 보았다. 물론 필자가 제시한 문제점이 지금은 해결되었거나 이미 수정, 개선되어 가는 상황일 수도 있다. 또한 그에 대한 해결방안들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다.

언급된 지역들 외에, 우크라이나 지역의 비닐하우스 사업문제도 본 주제와 관련하여 고민대상이 포함시킬 수 있다. 이곳에서도 운영의 주체를 두고 사업수행주체와 고려인 사회 간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해 재점검하고 조정이 필요하다(현지 사업주체 확정, 계약서 작성, 고려인협회 혹은 그에 상응하는 고려인 조직에 확실한 위임 문제 등).

러시아 남부 볼가강 하류(볼고그라드 및 칼미크공화국) 지역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곳이다. 이 지역은 소련해체 이후 신흥 고려인 집거지로 부상한 곳으로, 복합영농단지가 설립되고, 한국문화세종센터 등이 활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2000년대 중반부터 모스크바 삼일문화원(대표 이형근)이 중심이 되어 모스크바 외에 볼고그라드에서 고려인 농업지원 및 정착사업과 교육사업을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각고의 노력 끝에 볼고그라드국립대학에 한국어과가 개설되기에 이르렀다. 이곳에도 적절한 지원과 관심을 투입시킨다면 그간의 노력이 있어 온 만큼 기대이상의 결실을 얻을 수 있고, 연해주와 더불어 제2의 러시아 내 고려인 집거 중심이자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 우뚝설 수 있으리라 본다.

한편 한국어 교육 및 예술문화활동과 관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 지역의 한국청소년문화교육센터에 대해서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이 센터에서는 고려인교사(한국어) 등이 고려인이나 타민족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풍물, 무용 등)을 가

르치고 있다.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 제2의 수도에 위치하고 있는 단체이니만큼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적절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연해주 농업진출과 장기토지임대 시에 고려할 사항들이다. 연해주를 포함한 극동지역은 19세기 중후반 한인의 이주와 정착, 양질의 토지점유, 1880년대 중반 이후 유럽러시아 러시아인 농민의 유입증가, 극동개발의 지속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문제가 뒤엉키면서 한인의 국적문제와 토지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던 곳이다. 당시 한인들(특히 1884년 6월 이후 이주자들)은 극동(당시 프리아무르) 지방정부의 차별적인 토지정책으로 고통을 당했었다. 그런데 최근 연해주 러시아인 농민층과 농업전문가 집단에서 러시아 중앙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토지임대정책에 대해 아직은 일부이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가령, 2012년 1월에 러시아 경제발전부는 극동의 농지개발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20개 극동농업발전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APEC회원국가들을 상대로 극동지역 농지 장기임대계획을 발표했다.[44] 이에 대해, 〈러시아 전략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 로마노프 이고르(Романов Игорь) 소장은,

> "우리는 외국인들이 미허용 농약이나 첨가물을 사용해 키우고 생산한 농산물을 먹기를 원치 않는다. 특히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토지사용은 극동지역 농지의 심각한 오염과 지력 고갈을 가져올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이미 연해주에서 나타나고 있다"[45]

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외에, 연해주채소시험장 시도렌코 세르게이(Сидоренко Сергей) 소장 또한 다음과 같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 "러시아 중앙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토지임대계획 발표는 연해주 농민들에게 당혹감을 주고 있다. 중국인 농장주들은 세금과 보험납부에 소극적이고, 토지의 지력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다. 한국인들의 경우, 한국정부와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비교적 법을 준수하며 등록가능한 적절한 토지들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과 달리 2-3명의 한국인 관리인 외, 나머지 90% 이상의 노동자들(농기계기사, 노동자, 농업기술자, 기타전문가)을 현지인으로 채용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46]

작금의 언론 기사로 보나 과거 토지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연해주 농업

44) 『프리마미디어』(PrimaMedia), 2012.1.26일자.
45) 『프리마미디어』(PrimaMedia), 2012.1.30일자.
46) 『프리마미디어』(PrimaMedia), 2012.2.28일자.

진출 문제는 향후 민감한 사안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연해주 농업 진출은 현지의 고려인과 그들에 대한 농업지원 문제와도 연계가 되어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체계적인 준비와 장기계획, 대응메뉴얼을 갖고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차자료)

- 『獨立新聞』, 1920년 3월 4일, 제49호, 「俄領實記」, 제1호, 〈移植된 原因〉.
- 동방대학교 및 한국교육원 강사 황나제쥐다 인터뷰(2012.5.20일).
- 온누리교회 소속 〈온누리미션〉 간사 조미정 인터뷰(2013.4.29일)
- 전 연해주 동북아평화기금 김현동 대표 인터뷰(2012.5.20일).
- 재외동포현황(외교부, 2010).
-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김게르만교수 인터뷰(2012.7.23일).
- 키르기즈스탄 고려인 실태조사보고서(2012.12.12),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전 학과장 염나탈리아 인터뷰(2012.5.25일).
-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김게르만교수 인터뷰(2012.7.25일).
- 카자흐스탄 개황(외교부, 2008).
- 한국외대 사학과/문화콘텐츠학과 임영상교수(독립국가연합 고려인연구자), 인터뷰(2012.5.18일).
- 하바로프스크 국립사범대학교 한국어과 이 나제쥐다 교수 전화인터뷰(2012.5.23일/2013.4.27일).

(2차자료)

- 박 보리스, 부가이 니콜라이 저 · 김광한, 이백용 옮김, 『러시아에서의 140년간』, 서울: 시대정신, 2004.
- 이광규, "사하공화국 고려인 연구 시안," 『재외한인연구』 제23호, 2011, 358쪽.
- 이송호 · 이재훈 · 김승준, 『연해주와 고려인』, 백산서당, 2004.

■ 이석우, "연해주 영농사업의 경험," 『한민족공동체』제17호, 2010.
■ 『재외동포신문』, 2013.4.23일자, 「몰려도 너무 몰린 키르기스 K-Pop대회」(http://blog.daum.net/kkrkk3/7954929, 2013.4.28일 검색).
■ 세종학당 14개 더 생겼다, 총 43개국 90곳-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723_0011297318&cID=10101&pID=10100; 2013.4.27일 검색).
■ 세종학당재단 홈페이지(http://www.sejonghakdang.org/nuri/sjs/form/SJS_Greetings) 참조(2013.4.27일 검색).
■ Б.Д.Пак., Корейцы 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период), М., 1993.
■ 『프리마미디어』(PrimaMedia), 2012.1.26/1.30/2.28일자.